
주제-02

LG는 왜 그린바이오를 선택했나?

명을재^{1*}

¹(주) 팜한농 작물보호연구센터장

LG화학은 2016년 4월 국내 그린바이오 1위 기업인 (주) 팜한농을 인수하였다. 팜한농은 종자, 작물보호제, 비료 등 농업 분야 3대 핵심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국내 1위의 그린바이오 기업이다. LG화학은 중장기적 미래 변화 방향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하면서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이오(Bio), 수자원(Water), 에너지(Energy) 분야를 선정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린바이오 기업을 인수하였다.

세계 그린바이오산업은 100조원 이상의 거대한 규모에 연평균 성장률 8%가 넘는 고성장 분야다. 2050년 세계 인구는 100억명에 달할 전망으로 이 많은 인구를 부양하려면 농업생산성이 현재에 비해 6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종자 및 형질, 작물보호제, 비료 등 팜한농의 그린바이오사업은 이처럼 무궁무진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인구 증가와 고령화, 경지면적 감소, 기후 변화, 식량 위기, 환경 오염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개발에 앞장서는 일이기도 하다.

팜한농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비선택성 제초제 ‘테라도’ 같은 신물질 원제개발, 네마프리 같은 바이오 컨트롤 제품 개발, 용출조절형비료 개발, 기능성 품종개발 및 F1벼종자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팜한농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농생명기술’을 개발하고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고, 엘지화학 중앙연구소에서 원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팜한농은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사업화하고자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방적 혁신)’을 통한 그린바이오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작물보호제 관련 생리활성이 우수한 미생물 또는 화학물질, 고부가가치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재료, 육종 가속화를 위한 생명공학 및 유전체 관련 기술, 새로운 기능의 비료 또는 생리활성물질 등의 전문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주저자: Tel. +82-41-730-9125, E-mail. ejmyung@farmhannong.com